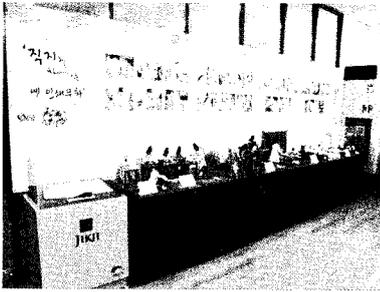


인협 청주시와 올해 14곳서 직지순회전 개최 국내 주요도시 및 중국 미국 독일서 홍보활동

〈직지〉가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배운 짧은 지식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록유산임을 가슴깊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직지〉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의 기록문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리기 위해 청주시와 대한인쇄문화협회는 매년 11곳 이상의 지역에서 직지순회전을 가져왔다. 올해에도 대한인쇄문화협회와 청주시는 11월까지 국내외 13곳에서 〈직지순회전〉을 개최했고, 12월중으로 대전 한밭도서관에서 2011년 마지막 직지순회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글 | 임남숙 차장sang@print.or.kr



찾아가는 직지와 고인쇄문화기획 특별전 -대구-



전주한지문화축제



제2회 중국국제인쇄기술전시회



2011 북엑스포아메리카



제17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제24회 한국국제관광전



2011 서울국제도서전



찾아가는 직지와 고인쇄문화기획 특별전 -광주-



제14회 부산국제관광전



제6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제18회 국제인쇄산업대전



2011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서 순회전

지난 3월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을 시작으로 전주한옥마을, 대전컨벤션센터, 한국국제관광박람회, 서울국제도서전, 부산국제관광전, 국제인쇄산업전,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전국도서관대회 등에서 직지순회전을 가졌다. 국내 주요 도시인 서울 대구 전주 대전 광주 부산 등 총 11곳에서 가진 직지순회전시회를 가졌다. 특히 3월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에서 진행된 '직지와 함께하는 옛인쇄문화 특별전'에서는 전시기간 종료 후에도 영인본을 상설전시해 지역내 지속적인 직지홍보효과를 얻기도 했다.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직지홍보를 이어 나갔는데, 4월에 개최된 중국국제인쇄기술전시회와 5월에 열린 2011북엑스포아메리카, 10월에 열린 2011프랑크푸르트도서전에서도 직지를 홍보했다.

순회전에서는 <직지> 금속활자와 월인천강지곡 디오라마, 다라니경 팔만대장경 등 신라 고려시대 목판 및 금속활자, 훈민정음 동국정운 등 목활자판 전시외에도 <직지> 금속활자 인쇄체험을 실시했다. 금속활자 인쇄체험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가 많았는데, 학생들과 외국인의 경우 고인쇄체험을 매우 흥미로워했다. 이 밖에도 금속활자가 인류 문명의 발달에 끼친 영향, 흥덕사·금속활자가 과학발달사에 미친 역할, 직지 제작과정 디오라마 및 껌날, 직지 홍보 리플릿, 한글과 영어 2개 국어로 제작된 세계인쇄문화연표 등을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해를 도왔다. ↻

기간	행사명	장소
3월16일 ~ 11월30일	찾아가는 직지와 고인쇄문화 특별전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4월9일 ~ 13일	제2회 중국국제인쇄기술전시회	중국 광둥현대국제전시장
5월5일 ~ 8일	2011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한옥마을
5월24일 ~ 26일	2011 북엑스포아메리카	뉴욕 자비츠센터
5월26일 ~ 28일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대전컨벤션센터
6월2일 ~ 5일	제24회 한국국제관광전	서울 코엑스
6월15일 ~ 6.19일	2011 서울국제도서전	서울 코엑스
8월3일 ~ 29일	찾아가는 직지와 고인쇄문화 특별전	광주광역시립도서관
9월2일 ~ 5일	제14회 부산국제관광전	부산시 벡스코
9월15일 ~ 17일	제6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	서울시청앞 광장
9월28일 ~ 10.1일	제18회 국제인쇄산업대전	고양시 킨텍스
10월12일 ~ 16일	2011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프랑크푸르트 메세
10월19일 ~ 20일	제48회 전국도서관대회	대전컨벤션센터
12월1일 ~ 28일	찾아가는 직지와 고인쇄문화 특별전	대전 한밭도서관